

금호타이어, 유럽형 타이어 테스트 친환경 1위

금호타이어는 유럽형 사계절용 타이어 솔루스(SOLUS) VIER가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 Auto Bild가 실시한 타이어 테스트 결과, 회전저항과 소음부문에서 1위로 지면에 게재됐다고 9월24일 발표했다.

특히, 친환경 요소인 연비 절감과 관련된 회전저항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스트는 눈길과 빗길 그리고 마른 노면에서의 주행 능력을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했는데, 금호타이어의 솔루스(SOLUS) VIER는 회전저항과 소음을 비롯해 눈길에서의 제동력과 방향 제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전저항의 감소는 연료소비를 줄이며 동시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₂ 감축 역할을 해 친환경적인 요소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최근 사계절용 타이어와 더불어 친환경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08년 하반기 유럽 시장공략을 위한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테스트를 주관한 Auto Bild는 독일의 저명한 자동차 매거진으로 테스트 결과는 소비자들의 구매 기준이 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8/09/24>